우리 하나님의 약점, 살아계심

(열왕기하 12:1~3)

1. 예후의 제칠 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2.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점, 살아계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점, 살아계심'
혹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든지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이든지 빨리 좀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진짜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데 살아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무소부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할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좋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시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점으로 인식하도록 작용합니다.
다른 종교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일본에는 600만 신이 있다고 하지만 유일하신 참 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이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들에게는 없는 약점이 있는데 바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배 받으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은 신 친화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신을 필요로 하지만 죽은 신을 원하는 내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은 선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민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껄끄러운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로 인해 편

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의식 바깥으로 몰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면 제일 먼저 기도가 막힙니다. 앉자마자 소리 내어 힘차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십중팔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 식의 기도는 한 마디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가짜 신들에게도 신화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신화 속의 신들과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속성을 가지신 채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면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에도 주관하실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게 개입하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에 의해 주어졌으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사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병이 난 것도 다 아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게 생긴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밖에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천지를 지으신 것도 좋고 전능하신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은 왜 내 삶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당신이 계획하시고 판단하시고 소원하시느냐는 말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는 그 모든 속성만을 가지신 채로 생각이 죽어 계셨으면 좋겠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안 보셨으면 좋겠고 상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상관하고 하나님은 그저 전능하심만을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다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불행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결국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선민들이 택하는 방법은 사실 참 선민의 방법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에도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여겨서 소리소리 질러가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일개 부장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소리치며 거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번에도 승진에 실패했다고 해서 회장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이럴 수는 없다면서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편안한 신앙생활 때문인데 이게 하나님의 단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그 앞에서 별의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도 죽었기 때문에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의 운신의 폭은 제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기 전에는 이 관계는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왕으로서의 치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아스가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로 인해서 아달랴의 칼날에서 구원을 받고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져서 양육되었다가, 7세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선에 의해 왕위에 즉위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 숨겨져서 양육을 받고 7세에 등극한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심 없는 교육을 받고 자라 40년 동안 치리를 하게 되는데, 이 40년간의 치리가 대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남 왕국 유다의 모든 왕들이 그랬듯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산당은 솔로몬 때에도 제거하지 못했다가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되어서야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하시므로 그런대로 평균은 했던 것 같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의심의 단초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하 24장을 보면 난리가 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의 말이 듣기 싫어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글을 쓸 때에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고 한 이유는 이 한마디로 요아스의 영적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산당 제사와 분향은 예루살렘성전 중심의 예배의 중앙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데, 북 왕국 이스라엘도 아닌 다윗의 왕권을 이은 남 왕국 유다에서 어떻게 산당을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산당에서의 제사와 분향은 성전과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산당에는 지성소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껄끄럽게 여

기게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해서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 기도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를 고발하는 격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인격적 살아계심의 증거가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당에는 이 지성소가 없었음으로 원하는 것을 신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의 신도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그것만 가지면 기쁘고 만족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상으로 당신을 담으라고 하는 신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밉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는 돈도 넣고 자식의 형통도 넣고, 애국자라면 국가의 번영도 집어넣고, 정치가라면 대통령자리도 넣고 싶어 하는데,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껄끄럽게 느껴졌던 것이고 반대로 산당 제사에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떤 신도 마음의 지성소에는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세상 것들을 들여놓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만이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오시겠다고 고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 왕국 유다에서도 산당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향은 곧 기도이고 추구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만족하고 기뻐하기 위해 추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들여놓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추구함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또한 산당에는 성소에 있었던 떡상이 없었습니다.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돈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돈 권력 형통 성공 무병장수 대신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돈 건강 성공으로 만족하기 위해 도와주실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끼어드셔서 당신으로 만족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합니다. 이와 같은 껄끄러움이 없는 산당 제사는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의 지성소의 자리에 세상 것들이 들어왔음을 깨닫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했던 나를 죽이는 것이 번제단의 제사였습니다.

반대로 산당의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서 내 마음에 끌어들인 이 세상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얻기 위해 뇌물을 쓰는 것입니다. 산당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교회생활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아스는 갓난아기 때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성전에서 교육을 받았고, 왕으로서 통치했던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요아스가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놓고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맛을 보는 것이 기가급의 연결 상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갓난아기가 왕이 되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맛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비유입니다.
매일 같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금방 태어난 아기처럼 부활 승천하면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우리가 포개져서 따라갈 때 나타나는 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인 의미를 떠나서 요아스의 실제 상황을 보면 어려서부터 단지 성전에서 교육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마음이 기가급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사람에게는 이처럼 산당 제사에 매력을 느끼는 기질이 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이전에 이미 갓난아기 요아스의 마음에 하나의 원죄적 경향과 체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마음의 지성소에 마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손에 쥐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성소에 이것이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죄적 체질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끌어들이려는 경향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한 체질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지무지 더럽고 추악한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취급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아스가 아무리 성전에서 하나님 교육을 받았어도 마음의 성향에는 이미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향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죄 사함 받은 것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마음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잊고 원죄적 성향에 의해 세상 것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는 결국 산당 제사와도 영적으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은 한, 언제든지 생래적으로 타고난 원죄적 체질에 의해 세상 것을 마음의 지성소에 끌어들이게 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산당제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그에 앞서 존재하는 유전적 죄의 성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요아스 자신이 성전의 설계와 구성을 생활화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매일 같이 상번제가 드려지는 것을 보며 원죄적 성향으로 세상을 빨아들인 마음이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기는 하지만 성전 생활화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원죄적 성향을 이길 자가 없고, 원죄적 성향에 지배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거하고 내가 살아서 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원죄적 성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거하는 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살아계심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고 장점이 되고 자랑이 되는 신앙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